

2학년 6반

손민주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

날씨 : 바람이 불고 하

제목 : 우리집이 좋아 늘 흐린 날씨.

우리가족은 오후 2시에 캠핑장에
서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. 나는 차
말을 하였다. 우리가족은 집에 도
착하자마자 모두 목욕을 하였
다. 외냐면 우리가족은 캠핑장에서
목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
나는 목욕을 하다가 내 발꿈
치에 가시가 박혀있는 것을 보
았다. 엄마는 가시를 빼주시겠
다면서 바늘을 가져오고 나서 내
발꿈치를 찔렀다. 그래서 나는
이렇게 새 생각 했다. 앞으로는
친구네 텐트에서 자기로
생각 해 본 것이다. 캠핑장에
서 있었더 일종에서 가장 싫었
던 게 바로 미꾸라지 구워이다. 그 캠
핑장에서 는 안 좋은 일
이 많았던 것 같아 다
앞으로는 미꾸라지 구워는 안
먹을 것 이다.

손민주